

익산시 철도 중심지 '도약'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추진
국토부·철도공사 등과 협의 중

익산시는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호남 철도 중심지로의 도약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종장기 철도운영 전략'과 '일반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일반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전기열차(KEMU-150)로 전환한다.

또 고속화 전략에 따라 고속열차는 200km 이상 장거리, 일반열차는 200km 미만 중·단거리를 운행하며 거점역

에서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연계 환승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호남권 거점역인 익산역을 중심으로 일반열차의 흐름이 용산~익산, 익산~목포, 익산~여수엑스포 등으로의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익산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반열차의 운행 횟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차량기지 확장 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심 중심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익산역 이용객들의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벼 소식재배 사업 전개… 효과 '톡톡'

생산비·노동력 절감
수확량 큰 차이 없어

익산시는 전국 최초 도입한 벼 소식재배(드문모심기) 사업을 통해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자체 최초로 소식재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소식재배는 모관의 벼씨 파종량을 상자당 300g 정도로 늘리고 3.3m당 이앙포기, 벼 한 포기당 산모는 모든 기준 10분~15분에서 3분~5분 내외로 줄여 필요한 벼 육묘상자수를 50%~70%까지 줄일 수 있는 재배기

술이다. 소식재배는 노동력, 병해충 등은 경감되지만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가 지난 2019년 신동진 품종으로 재식밀도별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10a당 수확량(정곡기준)이 37주 490kg, 42주 490kg, 50주 511kg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 지역 소식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가량이 소식재배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벼 소식재배는 생산비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은 소식재배를 할 경우 영농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일반

재배보다 10a당(300평) 6만4500원 가량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 지역은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 1만4000ha의 50%가 소식재배를 도입하고 있어 연간 50억원의 생산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벼 소식재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에서 익산시를 방문하고 있다"며 "다양한 효과가 있는 소식재배를 많은 농민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착한가게 3곳, 가정의 달 맞아 이웃사랑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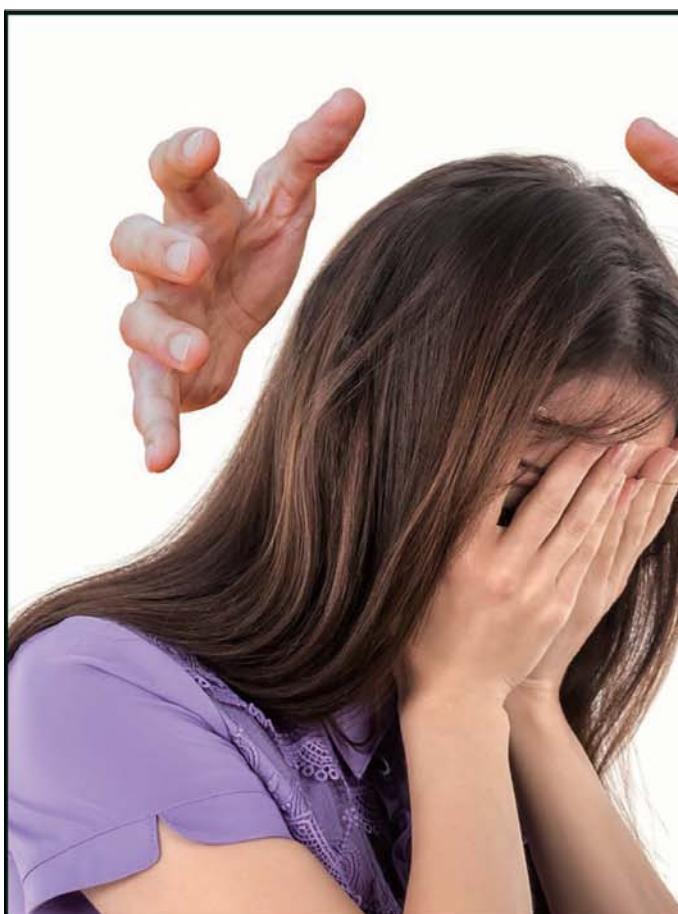
수송동에서 자영업자 3명이 잇달아 착한가게에 등참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이정아 헤어(대표 이정아), 꿈정이 최고예요(대표 양성우), 맨발의 청춘 연탄구이(대표 전의현)가 매월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관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주는 선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정아 헤어 이정아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아 민간위원장은 '코로나 블루로 손님이 많이 줄어든 가게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시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둡



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원광대학교병원 산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대표이사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의 이동형 CT가 코로나19 의료 현장과 의료소외지역에서 환자들을 진료한다.

원광대병원, 이동형 CT 버스 운용

산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 코로나19현장·의료소외지역 진료

원광대학교병원 산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대표이사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의 이동형 CT가 코로나19 의료 현장과 의료소외지역에서 환자들을 진료한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최근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온드림 모바일병원(CT 진검 단위)과 산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의 이동형 CT를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CT 진검 단위는 국내 최초다.

온드림 모바일병원은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현대자동차 정동구 재단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찾아 사회공

현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6일, 고려대 의대 본관 광장에서 '온드림 모바일 병원'의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어 열린 기념식포럼에서 윤권하 대표는 '이동형 CT 개발과 임상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고려대 의료원과 온드림 모바일 병원의 사회 사업에 뜻을 같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바일 CT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전기차산업연계 청년일자리 138명 모집

군산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미래형 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138명을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신산업인 전기차산업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모집에 앞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개모집 했으며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등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 총 9개 기업을 참여할 청년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전기차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여사업장으로 선정한 기업의 개별 채용일정에 맞춰 모집 대행기관인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450-1315~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기업에서 개별 채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조회, 수행직무 및 직무환경 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선발된 청년은 오는 7월부터 2년간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과 복리후생 차원의 교통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별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전기차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시민원탁회의 문화도시포럼 연달아 개최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정하는 제4차 문화도시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시민퍼실리레이터 양성 워크숍을 시작으로 4월에는 시민조사단(문화도시포럼)을 가동하고 오는 17일 시민원탁회의, 20일 문화도시포럼을 연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군산'이라는 모토 속에 시민들의 활동과 시선으로 지역 지원들을 찾고 발굴하는 시민활동 프로그램이다.

군산을 전 지역을 9개 구로 나눠, 일상생활부터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유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5.1~12)을 받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코로나 피해

'도로점용료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1억 6천만원 규모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매년 3월에 부과했던 것을 고지 유예하고 25% 감면 혜택이 적용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다음달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지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